ECONOMIC FOCUS

2025. 12. 1.

Global Macro Team

정성태 Senior Economist
sungtai.chung @samsung.com

구민정 Economist
mj.gu@samsung.com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한국 11월 수출

당사 예상 부합; '26년 한국 수출 상향 가능성 확대

- 11월 한국 수출은 당사 예상에 부합. 반도체 수출 증가율의 확대와 자동차 수출 개선 영향. 반면, 나머지 품목은 관세 영향, 수요 둔화 등으로 부진을 지속
- 9월 이후의 범용 반도체 가격 급등, 주요국 금리 인하에 따른 내구재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'26년 한국 수출 당사 전망(9.5%)을 상회할 가능성이 점차 확대

'25년 11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8.4% 증가한 610.4억 달러로 당사 전망(7.3%)에 부합했다(시장 예상은 5.3%, Bloomberg 기준, 이하 전년 대비). 아울러, 일평균 수출도 8.4%를 기록하며 9~10월 평균인 8.2%와 비교할 때, 한국 수출의 증가세는 변함없이 이어졌다. 11월 한국 수출의 주요한 특징은 1) 반도체(38.6%)의 증가율이 재차 확대되었고, 2) 자동차(13.7%)가 관세 충격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보였으나, 3) 여타 품목은 여전히 부진을 지속했다는 점이다.

11월 한국 수출의 세 가지 특징과 향후 전망

첫째, 반도체 수출(38.6%)은 꾸준한 HBM 수요와 DDR4 등 범용 반도체의 가격 상승(11월 DDR5 16Gb고정가격 399.7%, NAND 128Gb 140.2%)으로 9월(22.0%)과 10월(25.4%)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. 대체로 반도체 수출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9~10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데, 11월의 증가율이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점은 '26년에도 반도체 수출의 확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.

둘째, 자동차 수출(13.7%)이 미국의 고율 관세 및 전기차 보조금 축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보였다. 물론 지난해 폭설과 파업으로 인한 생산 및 선적 차질의 기저효과도 있으나, 11월의 높은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, 하이브리드 수출 증가, 주요국의 금리 인하 이후 전반적인 내구재 수요 개선 등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. 반면, 화장품(4.3%), 이차전지(2.2%)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(철강 -15.9%, 석유제품 -14.1%, 일반기계 -4.2%, 가전 -2.4%)은 부진을 지속했다.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과 그에 따른 수요 둔화(철강, 가전), 글로벌 유가 하락 및 중국과의 경쟁 지속(석유제품) 등의 영향이다.

셋째, 지역별 수출에서는 중국(6.9%), 아세안(6.3%), 인도(1.8%), 미국(-0.2%) 등이 9~10월 평균보다 개선되었다. 다만, 지역별 집계 기간(매월 1~25일) 중 조업일수 감소(-1일), 해당 지역에서의 반도체의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하면 개선 폭은 헤드라인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.

한편, 당사는 '26년 한국 수출 전망을 금융시장 예상보다 높은 9.5%로 유지하나, 9월 이후 디램 가격의 급등, 자동차 수출의 개선, 향후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교역의 회복 등을 감안하면 두 자릿수 초반까지 상향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Member of
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